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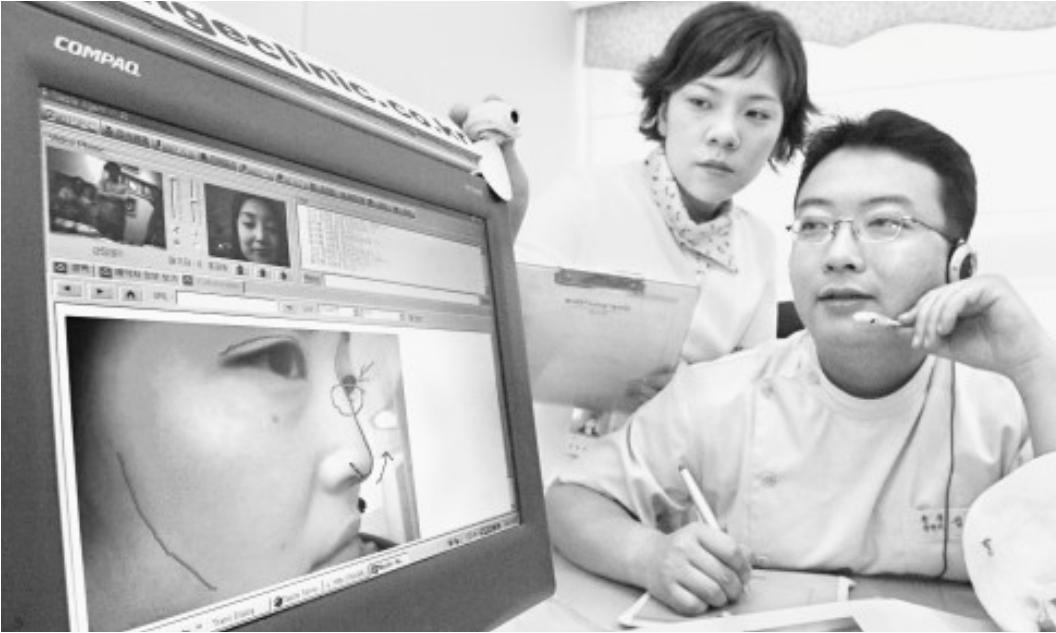
“2년뒤 開途國지위 잃으면 농업분야 年 1조원 손실”

農경제학회 학술대회

오는 2004년 끝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을 경우 농업분야 손실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94년 타결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은 6년간 평균 36%, 개도국은 10년간 평균 24%의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

해야 한다. 21일 한국농경제학회에 따르면, 경성대 임정민 교수가 최근 속초에서 열린 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우선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고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면 쌀 생산량은 연간 33만 7000t이 줄어들어 전체 농가 이익이 9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쌀 생산농가들의 농가당 손실액은 85만1000원에 이른다. 임 교수는 또 돼지고기의 경우 농가 이익이 403억원 감소해 농가

당 손실이 167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양과(농가이익 감소 474억원), 쇠고기(1369억원), 포도(1287억원) 등도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이번 분석은 UR 협상 때의 관세감축 폭을 적용한 것으로 뉴라운드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공산품 분야 이익은 계산되지 않았다. /崔源奎기자 wchoi@chosun.com



◇성형상당도 인터넷畫像으로

서울 노원동의 한 성형외과는 최근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한 성형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의사가 웹 카메라를 이용, 환자의 얼굴을 보며 성형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鄭載烈기자 krchung@chosun.com

은행 ‘대금업’ 허용할듯

금감위, 내달 최종결정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은행들의 소비자금융(일명 대금업) 사업 진출에 대해 정부가 사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았다. 금감위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1일 “현행 법률상 은행들이 할부금융사를 통해 소비자금융 사업을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만 은행이 고대대금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자금 조달 및 대출 한도 등은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은행들이 저축이 아닌 회사 내에 별도 사업부를 만들어 대금업을 하는 것은 막을 방침이다.

금감위는 8월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소비자금융 사업 진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쯤부터 국내 은행들은 할부금융사를 자회사로 세워 대금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준비 중인 소비자금융은 은행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庶民)들을 대상으로 연 20~30%의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세티그룹은 세티파이낸셜코리아라는 자회사를 설립, 가장 먼저 이 시장에 진출했다. 재정경제부는 할부금융사의 대출 비중을 전체 여신 금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黃順賢기자 icarus@chosun.com

발급기관→세무관서 납세서류 직접전송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는 국민들은 등기부등본·호적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일부러 구청이나 등기소를 찾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등기소나 구청 등 해당 기관에 서류를 신청하면 발급기관서 관련 서류를 곧바로 세무관서로 전자 송신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구비서류 발급기관서 세무관서로 직접 전자 송신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許仁眞기자 njung@chosun.com

국내외 통신업계 CEO들 ‘자욱과 천국’

불명예퇴진서 장관 발탁까지

유럽 최대의 통신업체인 독일 도이체텔레콤 론 쪼머 CEO(최고경영자)가 최근 사퇴했다. 지난 7년간 도이체텔레콤을 이끌었던 쪼머 회장은 공룡 기업이었던 회사를 세계적인 통신·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시킨 주인공. 96년에는 도이체텔레콤의 민영화를 주도해 독일 최고의 CEO로 추앙을 받았다. 그는 공격적인 경영으로도 유명했다. 전 세계를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10여개 통신업체의 지분을 확보했고, 작년에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무려 3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이동통신업체인 보이스트림 등을 인수했다. 하지만 인터넷 바벨이 사라지면서 그는 끊임없는 사임 압력에 시달렸다. 회사의 부채는 670억달러에 이르렀고, 주가 역시 2000년 3월 최고치에 비해 90%나 폭락했다.



◇론 쪼머 회장



◇미셸 봉 회장



◇조지프 나치오 회장

美·獨·佛 무리한 확장으로 경영악화 한국선 구조조정 성공... ‘상종가’ 누려



◇박운서 부회장



◇표문수 사장



◇이상철 장관

CEO 버나드 에버스와, 웨스트컴퓨터의 조지프 나치오도 호황기 때의 무리한 확장이 최근이 돼 결국 불명예 퇴진에 처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통신업체의 CEO들은 요즘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단행한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可視化)하면서 기업과 함께 CEO들의 주가도 상승기를 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운서 테이콤 부회장. 박 부회장은 작년 초 80여 일간의 파업으로 반사상태에 빠진 테이콤 대표이사에게 취임, 전체 직원

의 30% (1000명 인원)를 내보내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2000년 93억원의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돌려 놓았다.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는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은 국내 최초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을 선보여 단 4개월 만에 86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올 상반기 중 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상철 전 KT(옛 한국통신) 사장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달 초 정몽보 장관에 발탁됐다. /趙亨來기자 hrcho@chosun.com

태양光주택 늘린다

산자부, 2010년까지 3만가구로 일반 전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밤·낮 등 가정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활용하는 ‘태양광 주택’이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지붕에 설치한 집열기(集熱機)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사용 후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3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2006년 1만 가구에 보급

■ 태양광발전시스템 3만호 보급계획 추진개요 (자료:산업자원부)

2001~2004년	2003~2006년	2007~2010년
3kW급 시스템 개발 (주택용)	주택 1만호 보급 (3kW급 시범 보급)	주택 3만호 보급 (대형 보급)

2001~2004년: 3kW급 시스템 개발 (주택용), 태양양력 국내생산 (고효율, 저가), 시범업체 육성 지원

2003~2006년: 주택 1만호 보급 (3kW급 시범 보급)

2007~2010년: 주택 3만호 보급 (대형 보급)

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해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정부 예산 지원(약 2000만원)의 20% (약 400만원)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대체 에너지 시범마을인 ‘그린빌리지’를 현재 대구·광주 2곳에서 2003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솔라시티(태양광 발전 단지)’를 지정,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朴淳旭기자 swpark@chosun.com

Tour 2000
마음속에 그린 유럽여행 - 투어2000
(주) 투어2000 여행사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한국투자빌딩 201호
www.Tour2000.co.kr
문의전화 (02)318-2000

유럽 318-3355
강력 추천 프랑스로(파리) 스위스(몽트뢰) 이탈리아(로마) 9일 2,090,000원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유럽여행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스위스(루체른) 11일 3,090,000원
러시아(북유럽) 4개국 13일 3,990,000원
영/프/스/이/독 + 오프라우 No.1 10일 2,390,000원
유럽 6개국(나폴리) + 오프라우 No.1 12일 2,990,000원

일 본 318-1177
동경/하코네/오사카/교토/벵부 5일 899,000원
동경/하코네/후지산/요코하마 4일 799,000원
벵부/아사노/마모토/후쿠오카 4일 599,000원
오사카/후지산/스튜디오 3일 599,000원
동경/후지산/디즈니랜드 4일 849,000원

동남아 319-3003
싱가포르/말라카/싱가포르 5일 499,000원
방콕/파타야/사무트/코끼리트레킹 5일 8/6/7/14/15/20/21 (단일) 8/7/25/28/29/30/31 (연속) 8/12/20/28/30/31 (연속)
말라카/파타야/사무트/코끼리트레킹 4일 7/25/28/29/30/31 (단일) 8/2/5/12/18/25/28/29/30/31 (연속)
싱가포르/말라카/싱가포르 5일 549,000원
싱가포르/말라카/싱가포르 5일 699,000원

청신년을 위한 여름방학 스페셜!
일본속의 작은유럽 - 하우스텐보스 유주과와 체험관 - 스페이스월드
나가사키/하우스텐보스&스페이스월드 3일 549,000원
나가사키/하우스텐보스&스페이스월드 4일 649,000원
오사카/나리타/교토(고베/아리마) 3/4일 799,000원
직접인을 위한 여름방학 특선 동경/인도네시아/자우야 4일 399,000원

중국 319-2110
대만/인/미/세계최장 427km 파적특특개!!
북경/민저신/용정 5일 449,000원
상해/항주/수주 4일 449,000원
베이징/톈진/상해/항주/수주/태호 5일 499,000원
베이징/톈진/상해/항주/수주/태호 6일 899,000원
상해/항주/수주/태호 4일 449,000원
베이징/톈진/상해/항주/수주/태호 4일 749,000원
상해/항주/수주/태호 4일 549,000원

미주 318-2288
LA/샌프란시스코 950,000원 / 덴버 950,000원 / 뉴욕 1,100,000원
미사부 특선 <미사부 특선>
미사부 핵심일주(연경투루) 7일 1,690,000원
미사부 핵심일주+유니버시티/디즈니랜드 7일 1,790,000원
하와이/미사부(디즈니랜드) 10/11일 1,990,000원
하와이/미사부(디즈니랜드) 8일 2,190,000원
하와이/미사부(디즈니랜드) 6일 1,990,000원
하와이/미사부(디즈니랜드) 8일 2,190,000원
하와이/미사부(디즈니랜드) 10/11일 1,990,000원

대양주 319-4141
추가비율이 없애준다!!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10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8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8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8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8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8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극 항공일주 8일 1,690,000원

유럽 318-3355
강력 추천 프랑스로(파리) 스위스(몽트뢰) 이탈리아(로마) 9일 2,090,000원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유럽여행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스위스(루체른) 11일 3,090,000원
러시아(북유럽) 4개국 13일 3,990,000원
영/프/스/이/독 + 오프라우 No.1 10일 2,390,000원
유럽 6개국(나폴리) + 오프라우 No.1 12일 2,990,000원

국내여행 319-2000
제주도/한라산 자유여행 319,000원
파라다이스 자유여행 259,000원
신속바다/신속제주여행 479,000원
신속바다/신속제주여행 389,000원
신속바다/신속제주여행 229,000원
제주도/한라산 자유여행 319,000원
파라다이스 자유여행 259,000원
신속바다/신속제주여행 479,000원
신속바다/신속제주여행 389,000원
신속바다/신속제주여행 229,000원

신비의 울릉도 214,000원
거문도/백도/대천항 187,000원
홍도/홍도/대천항 186,000원
지리산/대천항/대천항 133,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59,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60,000원
신비의 울릉도 214,000원
거문도/백도/대천항 187,000원
홍도/홍도/대천항 186,000원
지리산/대천항/대천항 133,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59,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60,000원

신비의 울릉도 214,000원
거문도/백도/대천항 187,000원
홍도/홍도/대천항 186,000원
지리산/대천항/대천항 133,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59,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60,000원
신비의 울릉도 214,000원
거문도/백도/대천항 187,000원
홍도/홍도/대천항 186,000원
지리산/대천항/대천항 133,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59,000원
최초순례/대천항 160,000원